

JST 공유대학, 인재양성 성과 창출

지난 한 해 312명 이수자 배출, 대학원생 주도 산학협력 연구 통한 지역 기업 기술 애로 해결 기여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으로 운영되는 'JST(Jeonbuk Saemangum Tech) 공유대학'이 지난 한 해 312명의 이수자를 배출하고, 대학원생 주도의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RIS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11개 대학으로 구성된 혁신플랫폼이 참여하는 '전북새만금테크(JST) 공유대학(원)'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전북대 JST공유대학본부(본부장 최진하)는 13일 전주 이룸다온컨벤션에서 '2025 JST공유대학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지역혁신 인재 양성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과 이동현 전북대 부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RISE 체계 전환에 따른 JST공유대학의 교육혁신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품질 향상 사례, 실험·실습 교과목 성과, 문제해결형 프로젝트Lab 운영 결과, 교육과정 참여 우수 사례 등이 발표됐다.

JST공유대학은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전북 핵심 산업과 연계한 융합전공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구상해 왔다. 전북지역 11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 체계를 통해 2024학



13일 전주 이룸다온컨벤션에서 '2025 JST공유대학 성과공유회'가 열린 가운데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과 이동현 전북대 부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년도 첫 신입생 247명을 선발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는 마이크로디그리, 부전공, 복수전공 과정에서 총 312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330명 선발도 완료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전북대를 포함한 도내 5개 대학이 공동으로 JST공유대학원 융합형 특성화 트랙을 신설해 현재 68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대학원생 주도의 연구와 산학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 애로 해결과 성과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2024학년도에는 40여 명, 5개 팀이 참여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약 80여 명, 11개 팀으로 확대해 학술논문 게재,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등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에는 '두드림(Do-Dream) 챌린지 아이디어 경진대

회와 진로·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분석 경진대회에서는 JST공유대학 재학생이 참여한 SAT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진하 JST공유대학본부장은 "RISE 체계 전환에 맞춰 지역 주도형 공동교육 모델을 한층 고도화하고, 지역·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연구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도내 교원들을 위한 2026년 방학 중 휴 프로그램이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인력센터 및 도내 전문 치유기관에서 운영된다.

교육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 '재충전'

전북교육청, 겨울방학 교원치유 프로그램 23일까지 운영... 교원 590여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기중 교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원들에게 치유와 회복,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방학 중 휴 프로그램을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인력센터 및 도내 전문 치유기관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기 중 교육활동으로 누적된 교원의 피로와 정서적 소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개 프로그램, 총 50회로 운영된다. 참여 교원 수는 590여 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예테라피 △항기테라피 △원예테라피, 푸드테라피, 자기이해 △스포츠, 요가 등이 있다. 각 프로그램은 소규모 체험 중심

으로 운영되며, 교원이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신체활동과 정서 치유 활동을 병행해 심신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방학 중 교원 맞춤형 치유와 회복,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해 2026년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AI 올바른 이해, 책임 있는 활용 지원

전북교육청,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학교·가정·지역 연계 교육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

생성형 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AI 디지털 윤리 학생교육자료 개발 △디지털 디톡스 캠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영화를 통해 바라본 AI와 디지털 세상 등 다양한 형태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에서 벗

어나스스로 점검·조절하려는 인식 변화를 보였고, 교사와 학부모 또한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올해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향을 '기술 활용 중심'에서 '윤리·판단 역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생성형 AI 활용, 가짜뉴스·딥페이크 대응,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지속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 대상 AI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확대, 가정에서도 일관된 교육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고도화와 현장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추기 개발·보급하고, 교사가 부담 없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사례 공유, 지원을 병행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최창용 주임, 정부 학자금 지원 유공 장관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학생취업처 최창용 주임이 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 운영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역 2026학년도 방송통신중·고 학생 모집

신입생 169명·편입생 41명... 내달 13일까지 원서접수

전북지역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신입·편입생을 모집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7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94명 등 총 169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편입생은 방송통신중학교 20명, 방송통신고등학교 21명을 모집한다.

전주덕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원서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전주덕일중 4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역시 오는 2월 13일까지 신입·편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중·고 운영센터(1544-1294) 누리집에서 모집요강과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